

# 불법 S/W 단속 언론이 왜곡

## 강한 단속 '용두사미' ... 정품 사용 정착 늦어져

글 백승오

**도** 대체 우리는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도덕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도덕적이라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선에서 도덕적 기준이 지어진다고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불법 SW에 대한 단속에 있어 예전에 없던 강한 단속을 표방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물론 정품 사용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의의만큼이나 강하게 출발을 했다. 그러나 정부 강한 단속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정품 사용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언론에 의해 왜곡되어 단속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한 요인이 된 것이다.

### 지나친 업체 편중 기사가 단속의지 약화

사실 언론의 역할은 있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하지만 예방이나 계도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언론은 단속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알렸다.

그리고 단속에 대비하는 기업 및 기관 등의 모습을 기동성 있게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단속을 둘러싸고 언론의 기사가 서서히 단속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지나친 단속', '예고 없는 단속', '경제에 부정적 영향' 등이 대는 이유도 여러 가지였다. 그러한 기사들 중에는 그나마 일리가 있는 것들도 있다.

물론 필자도 갑작스럽고 강한 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최근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두고 이루어진 보도들은 불법 사용에 대한 핑계거리를 나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또한 한 언론에서 보도를 시작하면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례를 들어 여러 가지 핑계를 들이댔다.

더 나아가 단속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시들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림으로서 소프트웨어 단속을 시들해졌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독과점에 의한 시

장 논리의 왜곡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양산하는 주원인이다.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치료해나가는 것이 불법 제품의 사용을 막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 태도는 불법 사용에 대한 변호에 그치지 않고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불법 단속이 왜 잘못된 일인가를 묻고 싶다. 나아가 불법 제품 사용의 단속에 대한 갖가지 사례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

물론 불시에 습격하듯 강한 단속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보도는 이번 소프트웨어 단속 보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 SW개발 업체 마저 불법 SW 사용 모순도

취재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의 상당수가 개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무론 앞서 제기했듯이 여러 언론에서 업체들의 딱한 사정을 자세히 보도해서 여론은 불법 제품 사용업체들에 대한 동정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의 대부분은 단속만 피하자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정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 웃지 못할 일은 자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면서 불법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피땀흘려 개발한 제품이 불법으로 사용된다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만을 적용해 세상을 살거나 기업을 경영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켜봐야 할 것이다. 강한 단속에 대해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갈 때 그리고 처벌의 강도가 약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가?

돌아켜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들을 우리는 정도처럼 견고 있는 것을 가끔씩 느낀다. 나 자신 또한 그러한 부류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아비판을 하면서 글을 마친다. ☞